



전국자치복권 1등 간담회

-국내 복권 사상 초유의 대박, 『60억원』 이 모두 나왔다.
-슈퍼코리아연합복권에서 인천에서 사는 P씨가 55억원을, 광주에 사는 J씨가 나머지 5억원에 당첨돼
-구입한 곳은 가판대가 아닌, 인터넷에서 구입해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

- ♠ 당첨금 60억원. 국내 복권발행사상 최고 당첨금으로 기록될 대박이 터졌다.
-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자치복권)와 제주도(관광복권)가 연합으로 발행한 이벤트 복권인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이 지난 3월 10일 추첨 결과 1,2,3 등 당첨자가 모두 탄생해서 최고 당첨 가능금 60억의 주인이 탄생했다.
- ♠ 행운의 주인공은 인천에 사는 P씨(42세).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의 공식 판매 사이트인 한국전자복권(www.korealotto.co.kr)에서 12월과 2월에 구입한 30장의 복권 중 4장이 모두 1,2,3등에 당첨된 것. 아쉽게 3등 1장은 놓쳤지만 P씨(42)에게 돌아가는 당첨금은 총 55억으로 복권발행사상 최고의 당첨금을 받는 행운의 사나이가 됐다. P씨에게 역대 당첨금을 안겨준 복권 번호는 1조 4343842로 전후 번호인 4343841, 4343843이 각 2등에, 4343840이 3등이 당첨됐다.
- ♠ P씨가 놓친 나머지 3등 5억은 광주에 사는 J씨에게 돌아갔다. J씨는 1월과 2월에 구입한 26장의 복권 중 1조 4343844번 1장이 5억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처음에 두 분 모두 당첨 사실을 알렸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며 '사실을 알리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다고.
- ♠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은 1등 30억, 1등의 전후 번호에게 주는 2등 각 10억(2매), 1등의 전전후후번호에게 주는 3등 각 5억(2매)으로 연번으로 5세트를 구입할 경우 최고 당첨가능금이 60억으로 발행 당시부터 화제가 되었던 복권이다.
- ♠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의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 조성 및 관광진흥사업에 사용된다.
- ♠ 지금까지 발행된 복권 중 최고 당첨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행하여 최고 당첨가능금 40억원이었던 <플러스플러스 복권>의 25억이었다.
- ♠ <슈퍼코리아 연합복권>은 현재 2회차가 판매중이며, 오는 6월 9일 두번째 60억원의 주인공을 찾을 예정이다.

당첨자 인터뷰

55억원에 당첨된 P씨는 자영업을 하며 몇 차례의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어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번 돈의 대부분을 채무이자를 갚는 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최고의 당첨금을 내세운 슈퍼코리아연합복권에 당첨되었다.

Q) 55억원에 당첨되셨는데, 처음 당첨사실을 듣고 어떠셨나요?

A) 믿기지 않았다.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겼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복권을 조회하고 사실임을 알았다.

Q)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또는 좋은 징조 같은 게 있었는지?

A) 별다른 꿈은 없었다. 다만, 항상 평소에 복권을 사면서 당첨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Q) 평소에 즐겨 복권을 구입하시나요?

A) 인터넷복권이 생기면서 복권을 산다. 새로운 복권이 나올 때마다 10일~15일 간격으로 꾸준히 10매 가량 구입한다.

Q)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사게된 계기가 있었나요?

A) 판매중인 복권중에서 최고당첨금이 60억원으로 가장 크고 1억짜리도 백명이나 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샀습니다.

Q) 인터넷 복권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A)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새벽에 끝날 때가 많다. 새벽시간에 복권가판대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복권을 산다.

Q) 지금까지 복권을 구입해서 고액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지요?

A) 복권을 구입해서는 고액에 당첨된 경우가 없다. 다만 맥주회사에서 하는 경품에 당첨되어 맥주 1박스 받은 것이 전부이다.

Q)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다.

Q) 당첨금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A) 우선 현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고 싶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해놓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의탁노인 등 사회에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사용할 생각이다.